

어명소 2차관, “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, 안전의식 향상 기틀로”

- 28일 전북도·익산시·교통안전공단과 센터 건립 업무협약(MOU) 체결
- 새만금-전주 고속도로 현장 찾아 안전관리 만전 당부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8일(금)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라북도(도지사 김관영), 익산시(시장 정현율),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권용복)과 익산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- 어 차관은 “익산에 제3센터를 신설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, 현재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 2곳에서 센터를 운영 중인데, 교육 수료자는 교통사고가 57% 감소하고 사망사고도 77% 감소하는 등 교육 효과가 매우 탁월”하다고 강조하였다.
 - “최근에는 화물차, 버스와 같이 치사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작년에 8개 과정에서 6.3만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”면서,
 - “익산에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추가 건립하게 되면 충청·전라권 주민들도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나날이 증가하는 체험교육 수요적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- 이어서, 어 차관은 전주지역의 새만금-전주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.
 - 어 차관은, “이 도로는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뿐 아니라 전주와 새만금을 이어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,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”을 거듭 당부하였다.

2022. 10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